

2016년 12월 8일

보도참고자료

이 자료는 12월 9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8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최근 CD/ATM 감소 현황 및 전망

- 2015년말 현재 국내에 설치된 **CD/ATM 수**는 12만 1,344대로 **2013년 최고치 (12만 4,236대)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감소**
 - 다만 2014년말 현재 십만명당 ATM 설치대수는 291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
- CD/ATM 설치대수 감소와 함께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비현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서비스채널중 CD/ATM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 (2016년 9월중 36.2%)
- 앞으로도 비현금거래 확대, 영업점 통폐합 등으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CD/ATM 설치대수는 구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들은 CD/ATM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기기운영비용 부담을 축소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문의처 :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 전자금융기획팀 팀장 김정혁, 과장 박미숙
Tel : 750-6639, 6613 Fax : 750-6519 E-mail : bokefp@bok.or.kr
공보관 : Tel : (02) 759-4016, 4028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CD/ATM 감소 현황 및 전망

1 설치대수 감소

□ 2015년말 현재 국내에 설치된 CD/ATM 수는 12만 1,344대로 **2013년 최고치(12만 4,236대)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감소**

— 이는 국내은행 영업점수가 2013년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영업점내 설치된 CD/ATM 대수가 줄어든 데 주로 기인**

	2012	2013	2014	2015
국내은행 영업점 수(천개)	7.7	7.6	7.4	7.3
점내 CD/ATM 수(천대)	67.1	67.1	64.9	62.7

— 한편 VAN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편의점,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외 CD/ATM은 편의점수가 확대되면서 증가**

	2012	2013	2014	2015
편의점 수(천개)	24.8	25.4	26.9	29.0
점외 CD/ATM 수(천대)	55.8	57.1	57.4	58.7

CD/ATM 설치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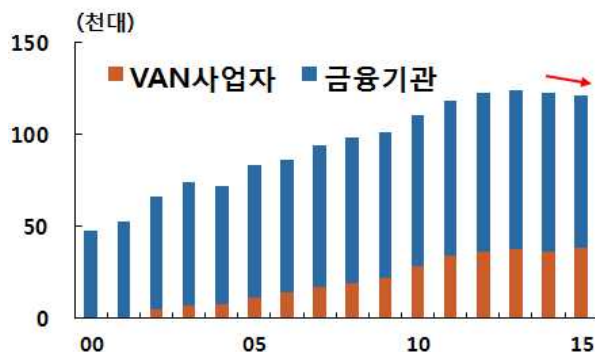
		(천대,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2015)
운영자	금융기관 ¹⁾	81.9	84.2	86.5	86.8	85.9	68.1
	VAN사업자 ²⁾	28.4	34.4	36.5	37.4	36.3	31.9
장소	점내	66.3	65.8	67.1	67.1	64.9	51.7
	점외	44.1	52.7	55.8	57.1	57.4	48.3
합 계		110.3	118.5	122.9	124.2	122.3	100.0

주 : 1) 국내은행, 우체국, 외은지점, 저축기관이 운영하는 CD/A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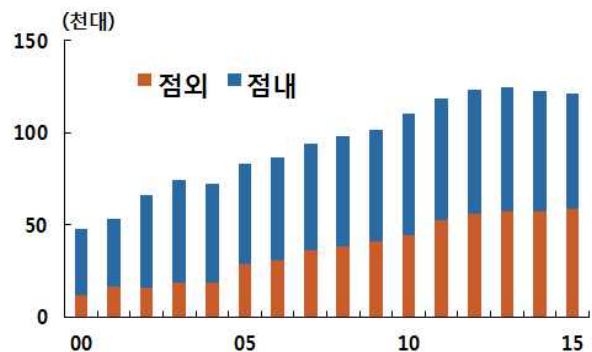
2) 노틸러스호성, 롯데피에스넷, 에이티엠폴렛,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BGF네트웍스 등 VAN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편의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CD/ATM

자료 : 한국은행

CD/ATM 설치대수(기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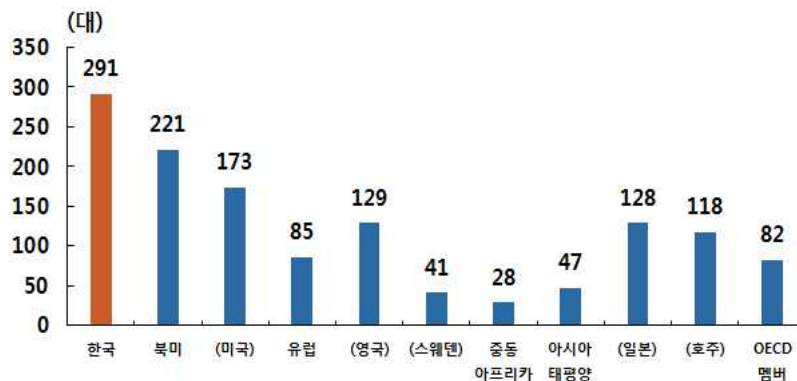


CD/ATM 설치대수(장소별)



- 한편 2014년말 현재 십만명당 ATM 설치대수는 291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

십만명당 ATM 설치대수



자료 : World Bank

2 이용건수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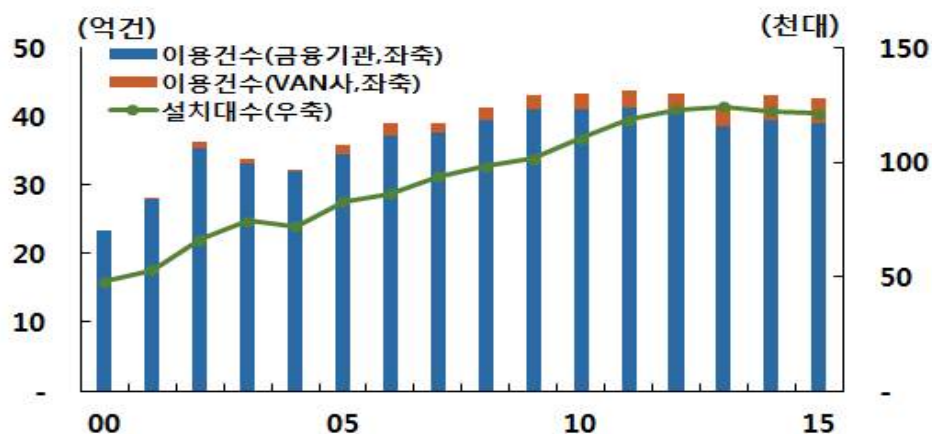
- 2015년중 CD/ATM 총 이용건수는 42억 5,629만건으로 2011년 최고치(43억 7천만건)를 기록한 후 소폭 감소하는 모습

— 다만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CD/ATM 이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CD/ATM 이용건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억건, %)
							비중 (2015)
금융기관	41.0	41.2	40.8	38.5	39.6	39.0	91.6
VAN사업자	2.3	2.5	2.6	2.6	3.5	3.6	8.4
합 계	43.3	43.7	43.3	41.1	43.1	42.6	100.0

CD/ATM 이용건수 및 설치대수



- 2015년중 CD/ATM 1대당 이용건수는 3만 5천건으로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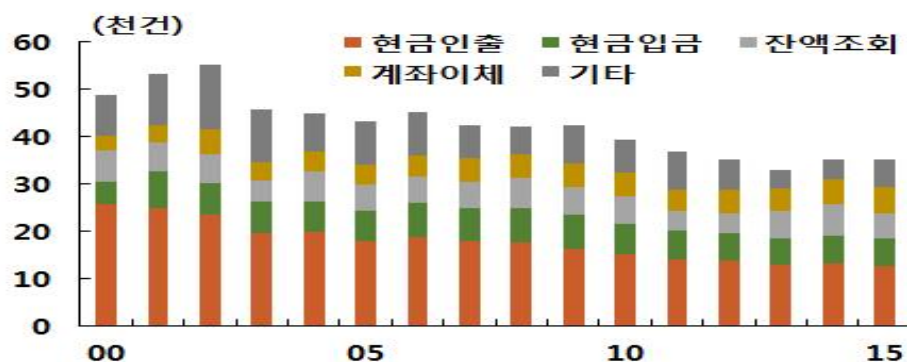
— 처리업무별로는 현금인출이 감소한 반면 계좌이체는 증가하는 모습

CD/ATM 1대당 이용건수

(천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 (2015)
현금인출	15.2	14.0	13.7	13.0	13.3	12.8	36.4
현금입금	6.5	6.3	5.9	5.4	5.8	5.7	16.2
잔액조회	5.8	4.0	4.2	5.9	6.5	5.3	15.1
계좌이체	5.0	4.7	5.0	4.7	5.5	5.7	16.3
기 타	6.9	8.0	6.5	4.0	4.1	5.6	16.0
합 계	39.3	36.9	35.3	33.1	35.2	35.1	100.0

기기 1대당 이용건수



- CD/ATM 설치대수 감소와 함께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비현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서비스채널중 CD/ATM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 (2016년 9월중 36.2%)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비중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기준, %)

	2012.12월	2013.12월	2014.12월	2015.12월	2016.9월
대면거래(창구거래)	13.0	12.2	11.6	11.3	10.1
비대면거래	87.0	87.8	88.4	88.7	89.9
(CD/ATM)	39.8	40.7	39.9	37.7	36.2
(텔레뱅킹)	13.4	13.1	13.1	11.7	10.9
(인터넷뱅킹)	33.9	34.1	35.4	39.4	42.7

자료 : 한국은행

3 수수료 수준

□ CD/ATM 운영시 고가의 기기 구입비(2천~4천만원)와 현금보급, 보안,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

— 이에 일부 은행들은 기기를 직접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VAN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거나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ATM을 활용

□ 국내은행은 자행 고객에 대해 현금인출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시간 이후와 타행 고객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수료 부과

—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CD/ATM의 이용수수료는 은행보다 높은 수준

현금인출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국내은행	자행고객	마감전	면제
		마감후	면제 ~ 600원
	타행고객	마감전	700 ~ 900원
		마감후	800 ~ 1,000원
VAN사업자			900 ~ 1,300원

자료 : 은행연합회

4 금융기관의 대응

□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은 구형 CD/ATM을 폐기하고 디지털혁신에 따른 신기술이 구비된 스마트형 ATM 등을 도입, 운영중

— 홍채·정맥 등 바이오인증기술을 적용한 홍채인증 ATM, 디지털 키오스크, oo페이 등 간편결제 현금 입출금서비스 제공 ATM, 외화송금 가능 ATM, 전자화폐 충전 및 환불 가능 ATM 등 다양한 ATM 기기가 등장

5 향후 전망

- 앞으로도 비현금거래 확대, 영업점 통폐합 등으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CD/ATM 설치대수는 기조적으로 줄어듦 것으로 예상
 - 무점포 운영체제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더라도 CD공동망[■] 참가를 통해 고객들은 타행이 설치한 CD/ATM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CD/ATM 설치대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
 -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특정 금융기관 고객이 타 금융기관의 CD 또는 ATM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88년 7월 가동되었음
- 금융기관들은 CD/ATM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기기운영비용 부담을 축소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VAN사업자에 위탁 운영하거나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CD/ATM 기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
 - 특히 전국 곳곳에 진출한 편의점내에 설치된 CD/ATM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금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CD/ATM의 경우에는 입출금, 계좌이체 등 기존의 처리업무 이외에 통장개설, 외화송금, 간편결제서비스 입출금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추가하는 경향이 높아질 전망
 - 또한 바이오인증 등 디지털혁신 기술을 반영한 셀프뱅킹 자동화기기 등 스마트형 ATM기 설치가 확대될 전망